

“아들의 수호천사가 되신 아빠”

순천 성가롤로병원

환자 소개

<개인정보>

- 성명: 김○○(M/55)
- 종교: 무교
- 직업:
- 진단명: 췌장암 및 간전이
(pancreas cancer & liver metastasis)
- 입원 전 경과
 - 2012년 7월 췌장암 진단
 - 2012년 7월 ~ 2013년 3월 수술 및 항암요법 받음
 - 2013년 5월 이후 구토와 설사, 황달 등의 증세 발생되어 septic shock 소견으로 항생제 치료 후 호전(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 받으면서 치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외래방문하면서 치료하다 가정간호 연계

하여 간호 받음

-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입원
 - 2014년 4월 2일 ~ 4월 15일
- 선종: 2014년 4월 29일(형수님이 근무하고 있는 요양원에서)

<환자상태>

- 주증상: 복부통증, Nausea & vomiting, 하지부종
- 현병력: 2012년 7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췌장암 진단받고 PTBD 시술 및 완화적인 항암요법 받았던 환자로 경제적인 문제로 입원해서 치료받지 못하고 가정간호 연계해서 간호 받다 통증과 전신쇠약, 부종이 악화되어 남동생이 고향에서 hospice care를 위해 본원을 내원함

진료 부분

<병력>

2012. 07. 삼성서울병원에서 췌장암 & 간 전이 진단
 2012. 08. ~ 2013. 03. Palliative Gemcitabine
 2013. 05. ~ 구토, 설사, 황달 등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를 통해 항생제 치료 후 가정간호 받다 통증과 부종, 오심 & 구토 지속됨

<경과기록>

- 입원시 통증조절은 fentanyl patch(12mcg) 붙이고 왔으며 전신쇠약, 부종 심하고 구강섭취에 어

- 어려움 있어 영양제와 이노제로 증상조절함
- 영양제와 이노제 투여 후 환자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갔으며 입원 3일째 부터는 대화도 하면서 통증 호소없이 condition 조금씩 회복해가는 모습 보임
- 입원 10일째 혈관확보에 어려움 있어 PICC 시술
- 입원 13일째 Lab.상으로 Hemoglobin수치 저하로 보호자 동의하여 수혈함
- 입원 14일째 연고지관계로 요양원으로 전원함

간호 부분

<간호진단 1. 통증>

사정

-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 - NRS: 6~7점
- 얼굴 찡그리며 표현은 잘 하지 않고 신음소리만 냄

계획 및 수행

- 통증 시 통증척도(NRS)를 이용하여 정확한 통증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함
- 질환과 관련된 복부통증으로 투여되고 있는 진통제의 용량이 적절한지 평가함
- 복부 통증 조절위해 morphin 5mg 사용함
-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 정서적인 지지와 영적 돌봄을 시행함

평가

- “이제 좀 살 것 같아”
- 복도 돌아다니며 휴식을 취하고 통증조절이 되니 통증이 오면 참지 않고 표현하는 모습 보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함

<간호진단 2. 오심, 구토와 관련된 영양부족>

사정

- “제대로 먹어 보지 못했어요”
- 하루 구토는 8회 정도 하고 구토양은 500cc정도 나옴

계획 및 수행

- 구토증상 시 의사처치 시행하여 조절하고 구토 후 구강간호를 실시하여 불쾌감을 없애줌

- 주변을 정리하여 냄새 나는 것을 없애고 음식 섭취 전 환기를 시켜줌
- 입안을 찬물이나 식염수로 헹구도록 함

평가

- “ 토하는 횟수가 줄어드니 조금은 살 것 같네요”
- 구토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휠체어 타고 돌아다니는 증상 나타나지 않음
- 봉사자와 대화하는 시간도 증가되고 표정도 밝아짐

<간호진단 3. 질환과 관련된 하지부종>

사정

- “다리가 부어서 움직이기 힘들어요”
- 허벅지까지 부종이 심해 바지를 입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함

계획 및 수행

-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함
- 저염 식이를 권하고 수분 섭취를 제한함
- 처방에 의한 알부민과 이뇨제 투여함
- 발 마사지를 시행하여 부종감소에 도움을 줌

평가

- “부종이 많이 빠졌어요”,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아요”
- 이뇨제 투여와 발 마사지 시행 후 다리 부종이 줄어듬
- 소변량도 증가함(입원시 소변량 300ml에서 800ml로 증가)
- 불편한 증상이 조절되니 이야기도 자주 하고 얼굴 표정도 밝아짐

사회복지 부분

<일반적 사항>

- 의뢰경위: 호스피스팀회의
- 성별/나이: M/55
- 종교: 무교
- 학력: 대졸
- 결혼상태: 기혼
- 주거형태: 월세(보증금 2,000만원, 월30만원)
- 보험유형: 지역보험

- 민간보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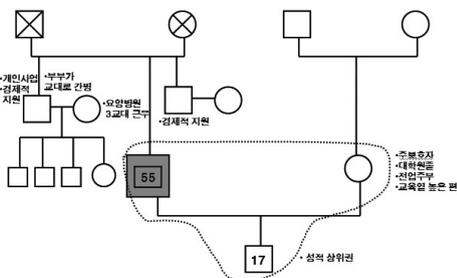
<개인력>

- 병식: 환자(+), 가족(+)
- 10년 전 서울로 상경
- 지하철 가관대, 신문배달일
- 서울 소재병원에서 수술 후 치료비 문제로 조기퇴원
- 경제적 상황
 - 발병 후 생활비 목적으로 카드 3~4개 돌려막기

- 카드빚 정리+병원비+장례비+자녀 학비 등 목돈 마련 위해 호스피스병동 입원기간 중 이사

- 장제준비: 가족모

<가계도>



<가족관계>

- 처: 자존심 강하고, 주위에 어려운 점은 절대 내색하지 않는 편. 외동아들이 유일한 희망이며, 기대감 높은 편.
- 형: 부부 모두 환자에 대한 애정 깊고, 헌신적인 편이며, 부부가 교대로 간병하고 있음. 가톨릭 대세 및 편안한 임종 맞을 수 있게 돕고자 호스피스병동 입원 적극 협조 및 개입함. 개인사업 하고 있지만, 수입 고정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발병 후 소액이나마 경제적 지원 해오고 있음.
- 남동생: 기혼. 발병 후 매달 약간의 경제적 지원

<강점사정>

- 의사소통 가능
- 형제들의 심리정서적 지지체계 좋은 편

<사회복지 사정 & 개입>

가족 - 부인

(문제사정)

- 호스피스병동 입원할 때 부인과 의사결정 과정 갈등(원거리로 인해 환자와 아들 돌봄 선택 문제에 대한 갈등)
“서울에 있으면, 저도 옆에 있어서, 간병하기 편하고, 가정간호를 권유했는데, 본인이 형님도 계시고, 알아보더니 호스피스병동으로 고집해서 온 거예요.”
“(서울에서 내려온 다음날)다시 올라가봐야 해요. 여

기는 형님이 계시니깐...아이가 원래 몸이 약해 제가 옆에서 챙겨줘야 해요.”

(개입)

- 돌봄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 환기 및 지지면담

환자

(문제사정)

- 신체기능 변화에 따른 상실감 및 좌절감
“여기오면 내가 혼자 화장실도 가고 혼자 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사람 손이 많이 필요 한 것 같아 불편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하죠. 내 마음도 불편하고, 내 몸도 힘들고.”
- 죽음에 대한 양가감정
“이번주에 죽게 될까 봐 두려워요.”
“기간이 오래 길어질까 걱정되요. 안락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개입)

- 삶을 긍정적으로 재환기, 재해석 할 수 있도록 면담
- 호스피스병동에서 질적 삶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내 상황에서 희망 찾기 유도

(결과)

- 본인 존재감 및 삶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제공

가족 - 형

(문제사정3)

- 형님 부부가 주야 교대 간병하고 있지만, 생업 종사하고 있어, 24시간 돌봄부담 호소
- 다인간병실은 자리 없는 상태

(개입3)

- 복지간병인 연계 : 타시군 대상자이나, 저소득 연계 가능 대상으로 추천하여 지역사회센터에서 7일간 낮동안 복지간병서비스 제공

(결과)

- 가족 간병부담 감소

경제적 측면

(문제사정4)

- 장기간 투병생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가중 및 목

- 독 마련 위해 입원기간 중 이사
- 형제들 경제적 형편 넉넉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생활비 소액으로 지원해왔고, 치료비 추가 부담 어려움 호소

(개입4)

- 호스피스자선기금으로 치료비 50% 지원
- 기초생활수급제도 안내

(결과)

- 치료비 부담 감소

사별가족측면

(문제사정5)

- 가족의 상실감

(개입)

- 사별가족편지발송(연4회), 사별가족모임 초대

원목 부분

위령성월인 11월이 깊어 가고 있다.

단풍잎이 하나둘씩 떨어지듯 호스피스에서는 오늘도 내일도 저렇게 삶의 끈을 놓고 떠나가실 분들을 보게 될 것이다. 위령성월을 지내면서 “우리 삶의 여정이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것이며, 죽음은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고, 우리 앞에는 살아계신 하느님, 계약의 하느님, 내 이름과 우리의 이름을 지닌 하느님이 계십니다”. 고 선포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게 된다. 어쩌면 호스피스에서 세상을 떠난 영혼들도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오고 계실 것이다. 그 분들 가운데서 5월에 귀천하신 ○○○님을 위령성월에 초대하고 싶다. 50대 후반인 ○○○님은 췌장암으로 서울에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어렵게 되자 고향 병원으로 전원 오셨다.

방문 첫날은 장시간 차를 타고 오느라 지쳐서인지 깊이 잠들어 있는 환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마음의 인사를 나누었다. 다음 날 방문하여 인사를 건네자 목소리에 힘은 없었지만 뚜렷한 발음으로 ‘안녕하세요’ 라며 밝은 표정을 지어보였다. 앞으로 ○○○님을 자주 방문하게 될 원목 수녀라고 소개했더니 반가운 표정으로 좀 앉으라고 권했다. 우리 병원 호스피스에 온 느낌에 대해 물었더니 괜찮다는 피드백을 보내 주셨다. ○○○님은 가톨릭 신자인 형님 내외의 간호를 받으며 하루 이틀 지나자 기력을 회복해 가며 안정감을 찾아갔다.

○○○님은 IMF때 실직하고 힘든 직업을 전전하며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을 둔 가장으로써 책임을 다 해왔다고 하셨다. ○○○님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

하여 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것 같았다. 투병 중에도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들의 표정이 밝으면 마음이 놓였고 아들 앞에서 아버지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며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어느 날은 가족과 떨어져 이곳에 와 계신 느낌을 물었을 때 환자는 부인과 아들에게 미안할 뿐, 혼자 투병하는 것은 충분히 감수해야 할 자신의 몫이라며 너무나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날 휴게실에 나와 쇼파에 기대어 앉아 있는 환자에게 “○○○님 여기 나와 계셨군요” (눈을 감은 채) “네. 어젯밤에 통증이 심해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제가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님 무엇을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이곳으로 내려오면서 정리할 것은 다 했지만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너무나 허망한 것 같아서요.”

“네, 아직 젊으신데 삶을 정리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형님처럼 신앙을 가져 보시겠어요? 신앙을 갖는다면 예수님께 의탁하고 고통을 위로로 받으면서 남아있는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형님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인지 ○○○님의 대답은 ‘네 좋아요.’ 라고 시원스러웠다. 봉사자와 함께 발 마사지를 해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교리를 시작했다. 교리를 하다가 환자의 컨디션이 다운된 것 같으며 중단해야 했다. 처음 계획은 대부분 호스피스 환자들처럼 대세를 주려고 했었는데 동생한테 세례를 받게 하고 영성체를 모시게 하고 싶다는 형님 내외분의 간곡

한 부탁을 받아들여 세례 준비까지 하였다. 호스피스 환자들의 여명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교리를 지도할 시간이 몇 번이나 될 지 염려가 되기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하느님께서 채워 주실 것으로 믿었다. 어렵게 4차례 교리를 끝으로 신부님과 상의한 다음 세례를 주기로 결정하였다. 형님 내외분과 봉사자분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가브리엘’이라는 본명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를 받았다. 환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는 것, 이제 ○○○님은 이 세상에서 소풍을 마치고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해 줬을 때 환자의 눈에서 희망을 빛을 볼 수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소통이 어려워지는 환자

가 마지막까지 이 희망의 빛을 따라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 밖에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틀 후 환자가 주일 미사에 참례하여 첫 영성체를 모셨는데 환자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영성체가 된 셈이다. 그 순간 질병으로 인하여 상실했던 영혼의 요구가 채워짐을 느꼈을까? 성체를 모시고 나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던 환자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다. ○○○님은 며칠 후 형수님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병원으로 가서서 임종을 맞이하셨고 형님네가 속한 본당 장례미사에서 ○○○님과 마지막 작별을 하였다. ○○○님은 하느님의 자녀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위령성월의 주인공이 되어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계실 것이다.

자원봉사 부분

환자와의 첫 만남은 봉사일인 4월 3일 서울에 거주하던 55세 남자 환자 분이 연고지 관계로 전날 입원했다는 말을 호스피스수녀님과 봉사팀으로부터 듣고, 병실 방문을 하였습니다.

병실에 가보니 환자 분이 힘없이 누워 계셨고 형님이 곁에서 간병하고 계셨습니다. 환자분에게 “저희가 도와 드릴 일이 없나요?” 하고 말을 건네니 무엇을 청해야 할 지 모르시고 말이 없으셨다. 첫 날이고, 조용한 환자분을 배려해서, 간단한 기도만 해드리고,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유독 내성적이고, 조용한 환자 분이던 것 같아 앞으로 호스피스병동 입원기간 동안 자원봉사팀과의 만남에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인데, ‘어찌하면 이분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을까?’고민이 되었다. ‘어찌해야 할까? 발마사지를 정성껏 해드리면, 조금은 마음을 열겠지…….’ 하는 마음에 다음 날 병실을 찾아가니 먼저 눈인사를 하셨습니다. 발을 만져보니 차가워서 발 마사지를 권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했던 것 같던 어둡고, 우울한 표정이 조금이나마, 힘이 나시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가톨릭 신자이셨던 형님과 형수님의 권유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세례 받기 전날, 이미용 봉사를

해드렸더니 말끔한 모습에 만족하시는 듯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또한 세례 받는 날에는 깨끗하게 침상 목욕도 시행해 드리고, 두 손을 꼭 잡아드렸더니, 표현을 잘 하지 않으셨지만,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외아들 하나만 평생 바라보면서, 자기 아픈 것보다 아들을 더 챙기며 한 동안은 집에서 통원치료하며, 공부 잘하는 아들이 혹시나 상처 받을까봐 사회복지 도움도 요청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아들바보였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분으로 처음엔 다가가기 힘들었으나, 아줌마의 친화력으로 조금씩 조금씩 서로의 벽을 허물고, 두런두런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며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며 호스피스 봉사팀원으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한 평생의 남은 여생이 질병으로 마감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마음 안에 남아있는 양금의 보따리를 모두 풀어내고, 새처럼 자유로이 천국에 닿을 수 있기를 두 손 모아기도 드립니다.

또한 호스피스 봉사팀원들은 환자 개개인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여 때로는 조심스럽게 때로는 친구같이 다가가, 맞춤형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